

##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典型)에 관한 연구

백 경 언

대순진리회 교무부·연구위원

- |                       |                  |
|-----------------------|------------------|
| I. 서론                 | IV. 대순진리회 교화의 의의 |
| II. 대순진리회 교화의 개념      | V. 결론            |
| III.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 |                  |

### I. 서론

미국의 관념론 철학자였던 하킹(Hocking William Ernest, 1873-1966)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 집단을 이루려 하는 것은 진리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계속 실험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함<sup>1)</sup>이라고 하였다. 이때 집단 내에서 먼저 깨달은 자가 뒤에 깨달을 사람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타인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프랑스 학자인 모로(Jean Mouroux, 1901-1973)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신(神)을 추구하는 것을 같이 도울 때에만 자신도 신을 추구하고 찾을 수 있다.”<sup>2)</sup>고 하였다. 즉, 이타적 활동이 동시에 이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돈독한 스승과 제

1) 요하임 바하, 『비교종교학』, 김중서 역 (서울: 민음사, 1988), p.198 참조.

2) 같은 책, p.197 참조.

자라는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간다. 이러한 전통은 동양의 교학상장(敎學相長)과 통하는 면이 있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는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며 가르친 뒤에야 곤궁함을 안다.”<sup>3)</sup> 하였고, 『서경(書經)』 「열명(說命)」에도 “가르치는 것이 배움의 반”<sup>4)</sup>이라고 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 공동체 내의 이러한 활동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교화가 있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 교화는 종단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基本事業)으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기도 하여 그 의의를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성원간 단결이나 신앙심의 성숙을 넘어 종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천상제의 뜻인 삼계를 바로잡아 천하를 광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교화현상을 살펴보면 기복(祈福)이나 치병(治病), 업보소멸(業報消滅), 체제 유지(體制維持)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교화가 공동체 내의 문제 해결을 넘어 천지공사의 대의를 실천하는 사업으로서의 기능에 턱없이 못 미치는 면이 있다.

교화에 대한 심도 있는 재인식과 이를 위하여 기초적인 연구 및 토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화의 내용이라 본다. 세상의 모든 것이 교화의 내용이 될 수도 있으나 모든 일에 근본과 말단의 구분이 있는 것과 같이 교화내용의 근간(根幹)은 광구천하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필자는 박우당 도전께서 밝히신 교화개념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진행된 교화의 전형(典型)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강증산 구천상제, 조정산 도주, 박우당 도전 등 종통계승의 역사 속에서 행해진 교화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교화 역사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종통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비판하고 설명할 것이다. 이로써 종통계승의 과정을 통하여 대순진리회의 교화

3) 『禮記』, 「學記」, “學然後知不足, 敎然後知困.”

4) 『書經』, 「說命·下」, “惟敎學半, 念終始, 典于學, 厥德脩罔覺.”

전형이 완성되고 있음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오늘날 교화 현장에서 무엇을 근간으로 교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형이 제시되리라 본다.

## II. 대순진리회 교화의 개념

### 1. 교리의 체계적 전달과 이해

대순진리회의 교학적 활동으로서 교화(教化)는 기본 교리를 다른 사람이 알기 쉽게 이해시켜 대순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대순지침』에는 교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화란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sup>5)</sup>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언설(言說)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교화자의 자질, 교화할 내용, 피 교화자의 수준에 따른 방편의 활용, 뚜렷한 교화 목표의 설정 등이다. 그러나 교화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므로 교화자의 실력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이때 실력이란 상극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상제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놓으신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 즉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여 성(誠)·경(敬)·신(信)으로 실천하는 힘을 말한다<sup>6)</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도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화도 ‘교리를 완전히 파악하여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 교리는 조정산 도주께서 1925년에 무극도(無極道)를 창

5) 『대순지침』, p.44 참조.

6) 1986년 4월 우당 훈시, 『훈시』(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도(創道)하실 때 16자(字)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및 목적(目的)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sup>7)</sup> 이러한 교리의 개요(概要)를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음양합덕(陰陽合德) · 신인조화(神人調化) · 해원상생(解冤相生) ·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종지(宗旨)로 하여 성(誠) · 경(敬) · 신(信)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修道)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 · 안신(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倫理道德)을 숭상(崇尚)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개조(人間改造)와 정신개벽(精神開闢)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 구제창생(救濟蒼生) · 보국안민(輔國安民) ·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建設)을 이룩한다.<sup>8)</sup>

대순진리회 교리개요에 비추어 보면, 교화에서 기복(祈福) · 치병(治病) · 업보 소멸(業報消滅) 등 개인의 현세 구복(現世求福)적인 측면이나 경서(經書)의 해석에 가탁(假託)한 예언적 도담(道談)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가르침에는 상고함이 없는 것을 경계하여 ‘무계지언물청(無稽之言勿聽)’이라 하였다.<sup>9)</sup> 옛것을 살핌이 없음은 모두 한 사람의 사심(私心)이요 천하의 공론(公論)이 아니라는 것이다.<sup>10)</sup> 대순하신 역사를 깊이 생각하여 교화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대순진리회에서 강제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이심과 광구천하(匡救天下)하시고자 천지공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 상제님의 재세시

7) 『전경』, 교운 2장 32절 참조, 도주께서 음양합덕(陰陽合德) · 신인조화(神人調化) · 해원상생(解冤相生) · 도통진경(道通眞境)의 16자 종지(宗旨)와, 성(誠) · 경(敬) · 신(信) 삼요체(三要諦), 안심(安心) · 안신(安身) · 경천(敬天) · 수도(修道) 사강령(四綱領)의 신조(信條)와, 무자기(無自欺) ·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 세계개벽(世界開闢) 등 목적을 정하셨다.

8) 『대순진리회요람』, p.14 참조.

9) 『書經』, 「虞書 · 大禹謨」, “無稽之言勿聽, 弗詢之謀勿庸.” 참조.

10) 주자는 이 말을 “言之無據, 謀之自專, 是皆一人之私心.”이라고 하였다.

(在世時)처럼 천지공사에 종도들을 참관케 하여 확신을 얻도록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교리로써 이해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교화의 중요성이 있다. 피 교화자의 도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이해는 물론 차후 수도의 향방이 모두 교화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화자는 반드시 상제의 천지공사를 교리로써 완전히 이해하여 상대의 이성에 부합하도록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전경』을 바탕으로 도인을 인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sup>11)</sup> 이처럼 교리로서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창생이 지상낙원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교화는 교리의 체계적 전달과 이해를 위한 활동이다.

## 2. 진법(眞法)의 모범적 실천

대순진리회 교화는 피 교화자를 도통진경의 경지에 이르도록 계도하는 일이다.<sup>12)</sup> 그러므로 대순하신 진리를 바탕으로 도통을 이루기 위해 인륜을 바로 행하고 무욕정정에 이르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순진리회의 도가 신도(神道)임을 밝혀 신인조화의 진법을 실천케 하는 일이다. 이는 신도의 권위를 인류가 떨어뜨림으로써 발생한 삼계의 혼란을<sup>13)</sup>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는 동시에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도통과 직접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모범적 실천은 피 교화자가 본 받아 따르게 하는 교화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정치(政治)’를 행하는 것을 “복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sup>14)</sup>고 비유했다. 이때 정(政)이란 오늘날 정치의 의미와 다르게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 주자(朱子,

11) 『대순지침』, p.17 참조, “대순진리는 『典經』을 근본으로 하여 참다운 도인이 되도록 교화하여야 한다.”

12) 같은 책, p.45, 참조.

13)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14) 『論語』, 「爲政」,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

1130-1200)는 이를 “사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sup>15)</sup>이라 했다. 공자는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sup>16)</sup>고 했다. 이는 모두 행동에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교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한 것으로 대순진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안에는 처신이나 인륜<sup>17)</sup>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법의 실천’<sup>18)</sup>은 신인조화의 법리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진법이란, 신명과 인간의 비겁(否劫)을 풀고자<sup>19)</sup>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度數)를 풀어, 도주께서 완성하신 도법(道法)을 말한다. 이 법은 도주께서 50년 공부종필하시고 박우당 도전께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sup>20)</sup>고 명(命)하심으로써 도전께서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고 귀의(歸依)할 바로 삼은 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훈회(訓誨)와 수칙(守則), 신조(信條)는 물론 공부·수련·기도 등이 있다. 특히 수도의례(修道儀禮)라고 할 수 있는 공부·수련·기도 등은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와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범인(凡人)이라도 상제의 유지(遺志)를 따를 수 있도록 짜놓은 법망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교화는 이러한 진법을 몸소 행동 실천해 보임으로써 상대를 도법에 귀의시키는 것이다. 이는 교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다. 개인적으로 지적이거나 호감, 카리스마를 지니지 않은 경우라도 오직 도규(道規)를 소중히 여기고, 성(誠)·경(敬)·신(信)을 다함으로써 타인의 모범이 되어 교화가 이루어진다.

15) 『論語集註』, 「爲政」, “政之爲言正也, 所以正人之不正也”

16) 『論語』, 「子路」, “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不正, 雖令不從”

17) 『대순지침』, p.37 참조.

18) 같은 책, p.22.

19) 『진경』, 교운 1장 9절, 공사 1장 1절, 공사 1장 9절 참조.

20) 같은 책, 교운 2장 66절.

### Ⅲ.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歷史的) 전형

교화는 전통적으로 인륜을 바르게 하여 풍속(風俗)을 바꾸는 것이었다.<sup>21)</sup> 그런데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성군(聖君)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兼備)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統制官掌)함으로써 교화가 행해졌다고 한다.<sup>22)</sup> 이때 입극<sup>23)</sup>이란 인륜의 표준(標準) 즉 본보기를 말한다. 맹자(孟子)가 성(性)의 선(善)함을 말할 때 반드시 요순을 칭하였다<sup>24)</sup>는 것도 인륜의 모범으로 이를 예로 들어 말한 것이다. 이처럼 선을 행하게 함에 실제의 증거를 들어 보여 사람들에게 힘쓰게 한다<sup>25)</sup>는 측면에서 전형(典型)의 중요함이 있다. 교화도 전형 즉 모범이 있음으로써 보다 바른 교화가 행해질 수 있다. 대순진리회 교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그러한 모범을 신앙대상과 종통계승자로부터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의 교화 실태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의 본보기로 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 1. 강증산 구천상제의 교화 역사

아래의 대순진리회 설립 유래문에서 보듯이 증산 상제께서는 증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허다한 방편으로 설유하셨다.

“오직 우리 성사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

21) 『詩經』, 「周南·關雎」, 참조,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22) 『전경』, 교법 3장 26절.

23) 「中庸章句序」, 참조, “蓋自上古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有自來矣.”

24) 『小學』, 「稽古」; 『孟子』, 「滕文公·上」, 참조,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25) 『小學』, 「稽古」, 참조,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에 대해 주자는 “孟子每道性善而言必稱堯舜以實之, 欲人知仁義不假外求, 聖人可學而至, 而不解於用力也.”라 하였다.

으로서 지기(至氣)를 조차 인계(人界)에 하강(下降)하사 삼계(三界)를 대순하시여 대공사(大公事)를 설정(設定)하시고 상하(上下)의 모든 사명(司命)을 분정(分定)하사 혹은 율령(律令)으로 혹은 법론(法論)으로 혹은 풍유(諷諭)로 혹은 암시(暗示)로써 연운(緣運)을 따라 허다(許多)한 방편(方便)으로 설유(說諭)하시여...”<sup>26)</sup>

『전경』은 구천상제께서 천지공사와 더불어 중생을 교화하시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제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소시에 지은 “많은 집에 덕화를 퍼느라 일월을 처자 삼아 가노라”<sup>27)</sup>는 내용부터 화천하시는 날 아침에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을 훈계하여 깨우치게<sup>28)</sup> 하였다는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이 교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중에 종도들에게 천지공사를 참관케 하고 공사의 조항을 묻기도 하며, 본 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여 공사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하는 등의<sup>29)</sup> 일은, 도를 믿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므로 교화의 형태로도 볼 수 있으나 초인(超人)으로서의 능력이 가미되어 있어, 후세에 도를 펴는 범인(凡人)이 본보기로 삼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장(章)에서는 수도인들이 본보기로 삼아 행할 수 있는 교화의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천상제의 교화는 대부분 친자(親炙)종도들에게 언설과 행위의 모범으로 행하여졌다.

상제께서 정미년 정월에 형렬에게 가라사대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 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sup>30)</sup>

26) 대순진리회 설립유래문.

27) 『전경』, 행록 3장 27절, “供德千門日月妻”

28) 같은 책, 행록 5장 34절 참조.

29) 같은 책, 교운 1장 8절 참조.



상제께서 병을 치료할 때에는 약재를 쓰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신 경우가 많았다.<sup>31)</sup> 이는 무도병(無道病)을 치유한다는 대순사상적 시각에서<sup>32)</sup> 언설로써 행해지는 교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전경』의 제생편을 보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도 약을 처방한 경우보다 말씀으로 하신 것이 대부분이었다. 병의 치료는 물론 교법 1, 2, 3장과 그 외의 많은 부분에서 종도들을 깨우치는 일이 언설로써 행해졌다.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종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농사나 자연 현상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sup>33)</sup> 이러한 면은 이야기 형식 등 다양한 교화방식을 개발할 소지를 제공한다.

교화의 내용으로는 먼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적절하게 인도(人道)를 선도(善導)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익모가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거나, 아내와 다투고 온 박공우에게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간다.”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부자(父子)간이나 부부(夫婦)간 잘못을 선도함에 때로 크게 꾸짖어<sup>34)</sup> 경계시키는 경우는 물론 선령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죽는다<sup>35)</sup>는 내용도 있어 교화로써 인도(人道)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원통함의 해소에 대한 교화이다.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을 해결하는 차원으로는 차경석의 형제가 부친을 밀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갚으려 하자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

30) 같은 책, 교법 2장 1절.

31) 같은 책, 제생 5, 7, 9, 10, 11, 12, 14, 15, 20, 21, 24, 26, 27, 28, 29, 30, 31, 32, 33, 40절을 보면 병자에 대한 치료가 대부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생편 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치병의 방법이었다.

32)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33) 같은 책, 예시 30, 교법 2장 12절, 행록 2장 21절.

34) 같은 책, 교법 1장 40, 42, 51절 참조.

35) 같은 책, 공사 3장 9절.

이나 후천에 또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므로 생각을 바꾸도록 권유하는 내용 등 다수가<sup>36)</sup>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가진 경우도 자신이 받아서 해결하는 원리를 상제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예<sup>37)</sup>도 있다. 이는 해원에 의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해원의 원리가 적용된 교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세 번째는 신도(神道)에 대한 내용이다. 인류가 물질에 치우쳐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긋나고 삼계가 혼란해졌다<sup>38)</sup>는 사실은 상제께서 직접 밝히신 내용이다. 이는 상제의 강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선령신의 해원<sup>39)</sup>과 선천에 높임을 받지 못하던 지덕을 받들게 하는 것<sup>40)</sup>이나 농업과 의약을 펼쳤으나 대접받지 못했던 신명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sup>41)</sup>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공사의 개요를 이해시키거나<sup>42)</sup> 앞으로의 일을 예시(豫示)하는 것<sup>43)</sup> 등 천지공사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이를 믿고 확신<sup>44)</sup>하라고 교화하고 있다. 때때로 전대미증유의 공사를 중도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현명한자를 원하거나 안타까운 심사도 보이거나<sup>45)</sup>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농사일이나 주변의 일로 비유하거나 풍유 혹은 암시 등 허다한 방편을 동원하여 언설로 이해시키고 교화하셨다.

상제의 교화는 언설과 더불어 행위의 모범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읍(井邑) 사람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이 상제를 처음 배알하고 감복하여 따르기를 청한 것은 상제의 의표(儀表)와 언어동작

36) 같은 책, 교법 1장 34절, 교법 2장 28절, 교법 3장 12절 참조.

37) 같은 책, 행록 4장 54절 참조.

38) 같은 책, 교운 1장 9절.

39) 같은 책, 교법 2장 14절 참조.

40) 같은 책, 교법 1장 62절 참조.

41) 같은 책, 예시 22절 참조.

42) 같은 책, 공사 1장 3절 참조.

43) 같은 책, 예시 80, 81절 참조.

44) 같은 책, 공사 3장 38절 참조.

45) 같은 책, 행록 1장 32절, 행록 3장 34절 참조.

때문이었다.<sup>46)</sup> 의표란 본받을 만한 모범을 말한다. 구천상제의 의표와 더불어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과 처신은 사람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상대를 심복(心腹)케 하는 교화로 작용하였다.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 줄을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 주셨도다.<sup>47)</sup>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sup>48)</sup>

상제께서 당시에 대하여 심히 비방하고 능욕하는 사람에게도 예로써 대하셨도다. 중도들이 불경한 자를 예우하시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에 상제께서 말씀하시되 “저희들이 나에게 불손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탓이니라. 그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리라. 저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을 내가 어찌 개의하리오.” 하셨도다.<sup>49)</sup>

상대에게 비방과 능욕을 당하고도 예를 잃지 않음은 범인으로서의 쉽지 않은 일이다. 상제께서는 관후하셔서 타인의 무례에 개의치 않고 언제나 예로써 대하셨다. 또한, 머슴에게 존댓말을 쓴다든지 여인들에

46) 같은 책, 행록 3장 37절 참조.

47) 같은 책, 교법 1장 10절.

48) 같은 책, 공사 1장 32절.

49) 같은 책, 교법 1장 12절.

게 길을 양보하여 당시로는 파격적인 처신을 하셨다. 동리의 양반이나 유생(儒生)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도 있었으나 상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행하셨다. 나아가 예로부터 내려오던 사제지간의 예를 폐지하고 종도들에게 평좌와 흡연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었다.<sup>50)</sup>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파격적이라 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처신은 구습(舊習)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며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예법을 몸소 실천하신 모습이 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며 장차 ‘진법’이 난다고 하셨는데<sup>51)</sup> 차례(次第)의 예법을 말씀으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직접 실천하여 본 보기를 보여주셨다.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행위는 주위 사람과 풍습에 변화를 준다는 차원에서 가장 선명한 교화의 전형이 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처신만이 아니라 상제께서는 신명을 대하는 예나 의식을 몸소 행하여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상제께서 대신명(大神明)이 들어설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추셨도다.<sup>52)</sup>

상제께서 차경석의 집에 유숙하시니 종도들이 모여와서 상제를 배알하였도다. 이 자리에서 상제께서 양지 온 장에 사람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제사 절차와 같이 설위하고 종도들에게 “그곳을 향하여 상악천권(上握天權)하고 하습지기(下襲地氣)식으로 사배하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심고하라”고 명하시니라. 종도들이 명하신 대로 행한 다음에 상제께서도 친히 그 앞에서 식을 마치고...<sup>53)</sup>

상제께서 신명을 대하던 예(禮)나 보여주신 의식은 행위를 통하여

50) 같은 책, 행록 5장 16절 참조.

51) 같은 책, 교법 1장 18절 참조.

52) 같은 책, 공사 2장 5절.

53) 같은 책, 교운 1장 37절.

그 실례를 보임으로써 선례를 남기고 뒷날 사람들이 따라 행하게 되는 예법의 전형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강증산 구천상제의 교화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구천상제의 교화역사는 대순진리회 교화전형의 부분은 될지언정 전부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제의 화천 후는 물론 재세 시에도 나타난다. 상제께 직접 지도를 받았던 친자 종도들은 누구보다 상제의 교화를 많이 접한 경우였다. 그러나 1907(정미)년 겨울에 고부 경무청에 압송되어 옥에 갇히는 고부화역을 겪으면서 종도들이 보인 자세는 교화의 효용을 의심하게 한다. 투옥된 자신들이 의병의 혐의를 받고 총살될 것을 두려워하며 상제를 원망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sup>54)</sup> 1908(무신)년이 되어 주식을 한 상씩 나누어 주자 “우리는 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는도다.”라며 상제를 한층 더 원망하였다.<sup>55)</sup> 그들은 석방되자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옥중에서 죽을 고비에 상제의 덕화를 입고 살아난 문공신도 화역 이후 상제의 방문에 불쾌함을 표했다.<sup>56)</sup> 김형렬과 차경석 등 몇 안 되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난경에 처하자 쉽게 의(義)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교화의 전형이 될 수 있는 상제의 교화를 직접 듣고도 상제를 끝까지 따르지 않은 것은 소위 ‘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화의 전형’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함을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최근 종교에서 교화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전하고 이로써 상대를 이해시켜 감화를 도모하는 종교의 전도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sup>57)</sup> 그러므로 교화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거나 상대를 감화시키는 등 내면적이고 인격적이며 자발적 변화를 도모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감화되어 변화를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피 교화자 자신이다. 이때 피 교화자의 결정은 개인의 욕망과 밀

54) 같은 책, 행록 3장 58절 참조.

55) 같은 책, 행록 3장 62절 참조.

56) 같은 책, 행록 3장 65절 참조.

57) 서경진, 『교화학』 (전북: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1), p.31 참조.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화 행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석사논문<sup>58)</sup>에서 ‘대순진리회 교화의 구성 요소’에 피 교화자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인간의 변화에는 ‘교화의 형식과 내용’ 못지않게 피 교화자의 욕망·의지·결단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와 연관한 교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상제께서 화천하실 때까지 상제를 따랐고 평소 성·경·신이 지극했던 차경석의 경우도 왕후장상(王侯將相)의 기운을 붙여 해원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도 12제국을 말하여 자칭함이었다.<sup>59)</sup> 교화에 피 교화자의 욕망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 교화의 전형으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수도의 구체적 방안이다. 상제님의 재세 시에 운수와 도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추종하던 종도들에게 상제의 급작스런 화천은 커다란 충격이었다.<sup>60)</sup> 심한 상실감으로 실망한 종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의 종도들에 대하여 촌산지순은 『조선의 유사종교』에 “종도들은 이제까지의 신앙은 자신들의 미신이었고, 교조에게 기만당한 데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상제의 인세 활동이 천지공사에 집중되었기에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의 과정에 종도들을 참관케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규모나 격식이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한 가르침을 베풀었다.<sup>61)</sup> 그러므로 종도들은 공사의 확신을 얻은 경우는 있었으나 천지공사의 전반적 내용과 대의를 파악한 것은 아니었으며 도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

도통하는 방법은 상제께서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

58) 백경언, 「대순진리회 교화에 관한 연구」(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33-35.

59) 『진경』, 공사 2장 19절 참조.

60) 같은 책, 행록 5장 36절 참조.

61) 진정애, 「정산 조철계의 교리체계 형성에 관한 연구」(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20 참조.

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천명하여 상제 외의 다른 인물에 의해 그 일이 진행됨을 말씀하신 바 있다. 그리고 화천하시는 순간까지 친자종도들에 대하여 수교자라 했을 뿐 대두목으로 지목한 사람은 없었다.<sup>62)</sup> 그러므로 인간을 개조하여 도통에 이르게 하는 대순진리회 교화의 전형은 상제의 교화역사로 완성되지 않고 “도통하는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진법이 가미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진법이 나오기까지 난법이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楚將蜂起)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sup>63)</sup>

그러므로 도통을 목적으로 수도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에서의 교화는 진법을 교화하는 대두목의 교화전형이 첨가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 2. 조정산 도주의 교화 역사

구천상제의 계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조정산 도주의 교화 역사는 ‘포교 50년 공부 종필’의 도수<sup>64)</sup>와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sup>65)</sup> 이에 따라 도주님의 교화는 지상에 상제의 덕화를 구체적으로 펴기 위한 중단 창립과 이에 대한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교화의 역사는 교리의 설파와 의례의 정형화, 공동체의 대 사회적 활동 등 최소 세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62) 『전경』, 교운 1장 38절, 행록 5장 참조.

63) 같은 책, 교운 1장 41절.

64) 『전경』, 공사 3장 37절, 교운 2장 66절 참조.

65) 상제께서 공사 3장 37절에 ‘포교 50년 공부 종필’의 도수가 있음을 말하셨고, 도주께서는 같은 책, 교운 2장 66절에 자신이 이를 마쳤음을 선언하고 있다.

## 1) 교리의 설파

도통하는 방법을 인간 이성에 이해시킨다는 차원에서 종교의 관념적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인간이 도통(道通)이 되고 신선(神仙)이 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며 허황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sup>66)</sup> 그러므로 이것을 인간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인간 이성에 부합하도록 정리된 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리체계의 정립은 이러한 차원에서 행해졌다.

도주께서는 1923년 계해(癸亥)년에 전교(傳敎)를 발표하셨다.<sup>67)</sup> 황제현원(黃帝軒轅)으로부터 예수교까지 500여 년을 간격으로 성인이나 뛰어난 인재들이 나타나 행한 가르침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는 계시로써 종통을 이으신 도주께서 인류사의 종교 및 성현들이 행한 가르침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신원(新元)을 맞이하여, 앞으로 상제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극대운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포교 50년 공부’의 도수에 따라 이 세상에 내기 위한 역사적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전교를 발표하신 후 을축(乙丑, 1925)년에 도주는 전북 구태인에 무극도를 창설하셨다. 이때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다.<sup>68)</sup> 상제께서 공사하신 진의(眞意)와 목적을 진리체계로 밝히고 유지를 따를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정한 것인데 이를 교리<sup>69)</sup>라 한다. 교리는 대부분의 경우 오랜 세월 수많은 종교사상가의 반성과 숙고를 통해 정립된다.<sup>70)</sup> ‘교의(doctrine)’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서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으

66) 같은 책, 예시 61절 참조. 상제의 이런 일을 여동빈의 고사로 비유하셨다.

67) 같은 책, 교운 2장 26절 참조.

68) 같은 책, 교운 2장 32절 참조.

69) 교리란 종교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신(神)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그것을 전(傳)하는 예언자(預言者)의 계시(啓示), 또는 경전(經典)의 기록된 바를 근거로 해석하여 정립된다.

70) 요하임 바하, 앞의 책, p.197 참조.



나, ‘교리(dogma)’는 오직 하나의 분명한 규범을 의미하여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권위와 능력이 분명히 성립된 곳에서만 생기는 것이라 하였다.<sup>71)</sup>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도주의 ‘도수를 푸는’ 공부(72)를 통해 과거의 사건과 중도들의 기억이 아닌, 불멸하는 이론체계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상제의 천지공사는 체계적인 관념으로써 이해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포교 50년 공부’의 도수에 따른 충실한 이행이 아닐 수 없다. 도주께서는 이러한 진리체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설법하여 도를 밝히는 교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 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 주셨도다.<sup>73)</sup>

이러한 모습은 교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수(度數)에 의한 공부<sup>74)</sup>로 천지공사의 대의를 완전히 파악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세에 대순하신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여 교화해야 하는 도인들이 주목할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리의 권위는 도주께서 1956년 3월 1일 부산도장에서 취지서(趣旨書), 기원(起源), 신조(信條) 등을 몸소 지어 발표함으로써 더욱 구체화한다.<sup>75)</sup>

## 2) 의례의 교화

71) 같은 책, p.136 참조.

72) 『전경』, 교운 2장 48절,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

73) 같은 책, 교운 2장 18절.

74) 같은 책, 교운 2장 43절, 참조, “도주께서 기유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니라.”

75) 태극도 도무원,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출판부, 1956), 참조.

도주님의 교화는 수도의 제반 법방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로 행해졌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깨달은 자만이 정확히 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수도인이 그 길을 몰라 실패하고 만다. 도주께서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진의를 파악하고 인간이 도통할 수 있는 법방 즉 수도의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종교체험은 신과의 만남이라는 격정적인 체험을 수반하는 인간의 느낌과도 관계 있다. 궁극적 실재에 대해 이러한 강렬하고 통합적인 반응을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에 대한 태도를 공통으로 표현하는 길을 의례라 한다. 의례가 확립되고 제도화되면 의례는 신앙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에서, 신앙의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작용한다.<sup>76)</sup> 결과적으로 종교 경험은 신과의 영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의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sup>77)</sup>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러한 의례를 도법(道法)이라고 한다. 신과 인간의 합(合)이 도통이므로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인이 조화되는 수도의례인 도법을 강조하고 있다. 도주께서는 이러한 의례를 50년 공부로써 확고히 정하고 실행하도록 교화하셨다.

一九五七년(정유년) 十一월에 도인의 각종 수도방법과 의식 행사 및 준칙 등을 설법 시행하시다.<sup>78)</sup>

특히 도주께서는 시학·시법 등 도법을 아래 인용문과 같이 상세히 정하였으며, 공부의 엄중함을 교화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몸소 100일 동안 불면불휴(不眠不休)의 공부를 하셨다.

도주께서 이해 十一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三十六명으로 하며 시학은 五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十五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四十五일이 되면 봉강식

76) 토마스 F. 오테아, 『종교사회학』, 박원기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89), pp.65-67 참조.

77) 요하임 바하, 앞의 책, p.168 참조.

78) 『대순진리회요람』, p.13.

(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범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써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sup>79)</sup>

이 공부 법방은 개인의 도통 완성과 삼계를 성공하게 하는 진법(眞法)으로 천명(闡明)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방을 “그대로 행해나가라”<sup>80)</sup>고 엄명함으로써 후대에 수도인이 귀의할 바를 정해주셨다.<sup>81)</sup> 이는 후대를 위한 교화 내용의 전형이 된다.

### 3) 구제활동을 통한 교화

자신은 물론 타자와 전체 생명을 구제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sup>82)</sup> 종단은 이러한 목적을 종교적 법리로 협력하여 이루겠다는 인적(人的) 집단이다. 종단을 창설한 도주께서는 세상을 광제(廣濟)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종단 차원에서 실행하여 사회의 공익을 위한 교화의 전형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1925년 도장이 건립되자 시행한 간척사업이다. 도주는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澇地)를 개척하였다. 신도들로 구성된 진업단(進業團)과 현금 二만 원과 구태인 일대의 개간지에서 얻어진 곡물 三百석이 동원 투입되었는데 두 섬의 네 곳에서 뜻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두 곳은 뜻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후 일본(日本) 마상회사(馬上會社)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안면도 二十만

79) 『전경』, 교운 2장 62절.

80) 『전경』, 교운 2장 66절.

81) 『대순진리회요람』, p.9, 참조.

82) 김경재, 「궁궐과 동굴에 갇힌 종교를 넘어서」, 《한겨레 신문》 2013. 6. 7.

평의 농지와 원산도의 염전(鹽田)이 생겨 두 곳의 여러 마을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sup>83)</sup>

이러한 내용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의 법리로 화민정세(化民靖世)하시어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룩한다는 상제님의 뜻을 사회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종단 차원에서 행해진 대사회적 교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도주께서 사회적으로 덕화를 퍼는 모범을 보인 것은 종단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에 결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 대 사회적 교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조정산 도주의 교리 정리는 신앙대상에 대한 지적 확신을 갖도록 한다. 이는 이성적 사고로 개인의 신앙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여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고도 공사 전반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교리교화로써 가능하다. 또한 해원상생 대도를 설파하여 대도의 참뜻을 밝힌 것은 수운 최제우의 선례를<sup>84)</sup> 극복한 교화 역사로 볼 수 있다.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가 이러한 교화로써 비로소 인류에게 펼쳐지므로 도주의 교리 설파는 대순진리회 교화의 전형이 된다. 그리고 교리의 정립이라는 지적표현 이외에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례다. 신과의 반복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신도(神道)로서의 의례를 정하고 이를 그대로 지켜 시행하게 한 것은 도통하는 방법을 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도주께서 간척사업을 벌이고도 종단의 재산이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 마을 사람들을 구휼하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은 종단의 구세 재민 의지를 확연히 보여준 모범이 된다. 이로써 구천상제의 교화 역사에서 미비되었던 도통을 위한 교화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완비되었다.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준다<sup>85)</sup>는 대두목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신 도주께서는 그 법방의 시행을 유명으로 남기시고 1958년 화천하셨다.

83) 『전경』, 교운 2장 35절 참조.

84) 같은 책, 교운 1장 9절 참조.

85) 같은 책, 교운 1장 41절.

이를 즈음하여 수도공부의 진법도 완성되었다.

그러나 고정된 교리체계의 이해에 비해 50년 공부 종필로 정하신 시학·시법공부는 천지운행의 도수에 따른 진법이므로 그 시행(施行)은 범인(凡人)이 시기를 정하여 자의적으로 시작하거나 마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법방은 그 법방의 용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를 천지도수에 맞추어 인간에게 시의적절하게 적용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는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진다.”<sup>86)</sup> 하신 구천상제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조정산 도주께서는 유명으로 종통을 박우당 도전에게 전하시며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sup>87)</sup> 내리셨다.

### 3. 박우당 도전의 교화 역사

박우당 도전의 교화 역사는 조정산 도주의 유명(遺命)<sup>88)</sup>으로부터 그 성격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종통을 계승하신 도전께서는 1969년(기유년) 사월에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시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셨다.<sup>89)</sup> 이때 도전께서는 아래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설립 취지를 천명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

대순(大巡)하신 유지(遺志)를 계승(繼承)하여 50년 공부 종필로써 전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법(遺法)을 숭신(崇信)하여 귀의(歸依)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創設)한 것이다.<sup>90)</sup>

도전의 교화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범위와 경우가 다양하다. 그

86) 같은 책, 예시 87절.

87) 같은 책, 교운 2장 66절.

88) 같은 책, 교운 2장 66절 참조,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

89) 『대순진리회요람』, p.13 참조.

90) 같은 책, p.9.

러나 무엇보다 도주의 유법을 숭신하여 귀의할 바로 삼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으므로, 도주의 유법에 따른 종단의 운영 면에서 교화 역사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때 도전은 도인들이 명심할 바를 매달 임원 전체에게 훈시(訓示)하셨다. 그 훈시의 요의를 정리한 것이 『대순지침』이다.<sup>91)</sup> 그 전반의 내용은 도인의 신앙체계를 정립시키고 실천하는 일과 종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 1) 신앙 이해에 대한 교화

하나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발견하고 이것이 각각 신앙의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sup>92)</sup> 그러나 수도인은 신앙의 주요 요소를 발견하고 체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신앙체계는 날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는 것이 교화자의 입장이다. 박우당 도전의 교화 역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도인의 신앙을 직접 영도하고 지도하는 현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박우당 도전께서는 먼저 신앙대상인 구천상제로부터 전승된 도의 연원을 밝혀 도의 근원을 명확히 하셨다. 이것이 종통이다. 종통이란 종파(宗派)의 계통을 말하는데, 종파란 각기 주장하는 ‘교리를 따르는 갈래’를 말한다. 강증산 구천상제로부터 시작된 도의 역사는 상제의 화천 후 신위(神位)나 천지공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다수의 종파로 나뉘었다. 이로써 오늘날 상제를 신앙하는 단체는 상제를 신앙한다는 사실만 서로 같을 뿐 그 유지를 해석하고, 하는 바가 모두 달라 매우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제께서는 이미 초장봉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예시하셨던 일<sup>93)</sup>이기도 하다. 박우당

91) 『대순지침』, p.3 참조.

92)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p.16.

도전계서는 상제의 계시[封書]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로부터<sup>94)</sup> 도가 나왔음을 밝히고 자신은 조정산 도주의 유법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했다는 사실은 물론 그 유법의 승신이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목적임을 밝혀 도의 역사적 전승 사실과 행위의 근거를 밝히셨다.

또한, 도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교리(敎理)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교화하셨다. 교리란 종교의 원리나 이치를 말한다. 각 종교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로서 종교체험의 세계를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리한 것이다.<sup>95)</sup> 도전계서는 진리도통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시면서 “진리토론회를 통하여 진리연구에 힘써야 한다.”<sup>96)</sup>라고 하여 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1986년 4월에 있었던 훈시다.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는 진리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고 완전히 알도록 하여 마음속에 조그만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인들 상호 간에 토론회를 열어 서로 믿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충분히 교환하여, 배우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임원들은 먼저 진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실력을 충분히 갖추어 토론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바르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잘 지도하여 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에 입각한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또한 수강원(受講院)을 두어 전 도인들의 진리파악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운영함은 물론 완전한 일꾼을 배출하여 상제님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전 세계에 알림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교와 같이 완전한 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93) 『전경』, 교운 1장 42절 참조.

94) 『대순지침』, p.14 참조.

95) 오테아, 토마스 F. 앞의 책, p.70. 쿵트가 말한 종교의 ‘3단계의 법칙’ 중 형이상학적 단계를 교리의 체계화로 본다.

96) 『대순지침』, p.18.

구천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바르고 완전하게 알도록 하고 진리에 입각한 수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라는 훈시는 신앙체계의 정립을 위해 애쓰는 교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 2) 신앙 실천에 대한 교화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다.<sup>97)</sup> 대순진리회의 신앙생활은 도통이라는 뚜렷한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전께서는 인연 있는 사람을 도법에 귀의시키고 수도에 대한 개념과 행할 바의 내용을 바로잡아줌으로써 수도인으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매진할 수 있도록 교화하셨다.

수도의 실천으로 강조된 내용은 무엇보다 인륜이다.<sup>98)</sup> 이는 구천상제께서 천하의 병으로 진단한 무도함<sup>99)</sup>과 관련 있다. 인간의 상도(常道)인 윤리가 어긋나 천하가 무도하므로 이에 대한 처방과 치료로 나온 것이 도이다.<sup>100)</sup> 도전께서는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sup>101)</sup> 라고 하며 윤리도덕을 강조하였다.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을 준수하며 상생대도의 윤리를 실천하고,<sup>102)</sup>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며<sup>103)</sup> 사회의 모범인이<sup>104)</sup> 되도록 한 것은 모두 인간 윤리와 관계된 내용이다. 여기에 도인 상호간 체계 확립을 수도란 개념<sup>105)</sup>으로 거론하고 있다. 체계체통을 지키게 하기 위한 내용을 보면 임원 상호간 믿

97) 『대순지침』, p.37 참조.

98) 같은 책, p.37 참조,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99) 『전경』, 행록 5장 38절, 참조.

100)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병세문’ 참조.

101) 『대순지침』, p.37.

102) 같은 책, p.27 참조.

103)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127 (2011), p.7 참조.

104) 『대순지침』, p.29 참조.

105) 같은 책, p.65 참조.



음과 덕화(德化), 은의(恩義), 예(禮), 진리(眞理) 등이다. 『대순지침』에 많은 부분이 이와 연관되어 있어 도전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수도를 3대 신앙원칙<sup>106)</sup>에 따라 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행하는 자를 일꾼이라 하였다. 종교에서 신과의 영적 관계나 교섭은 인간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행위를 수행하고 그것을 통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행위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한다.<sup>107)</sup> 대순진리회에서는 포덕·교화·수도를 신앙원칙이라 한다.<sup>108)</sup> 그러므로 이를 통하지 않고 도통하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이론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특히 수도의례는 진법으로 도주께서 설하신 기도, 수련, 주일이며 도의 생명이라 하는 시학·시법의 공부 있다. 이에 대한 시행을 명하시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고 사례를 지적 보완하며 이를 독려하는 교화는 박우당 도전의 교화역사에서 자주 등장한다.

수도의 실천으로 성·경·신 삼요체의 실천도 강조되고 있다. 대순진리회 수도는 앞에서 말한 신앙원칙 혹은 외형적<sup>109)</sup>인 의례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면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무얼 하느냐’가 아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상계에서 “마음을 볼 뿐이다.”<sup>110)</sup> 하신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 도전계서는 수도의 삼요체인 성·경·신에 수명(壽命)과 복록(福祿)<sup>111)</sup>은 물론 운수<sup>112)</sup>와 도통이 달려 있다고 하여 도인으로 하여금 언제나 경계하게 하였다.

106) 『전경』, pp.44-46, 참조.

107) 요하임 바하, 앞의 책, pp.168-169 참조.

108) 이는 1972년 도전계서 정하신 기본사업이다. ‘수행’은 ‘수도’라고 표현되며 공부·수련·기도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순진리회요람』, p.18에 있다.

109)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김희성 역, 앞의 책, p.212 참조. 일명 축적적 전통물로 사원, 경전, 신학적 체계, 무용양식, 법적 혹은 그 밖의 사회제도, 관습, 도덕적 규범, 신화를 말한다.

110) 『전경』, 교법 2장 10절.

111) 청계답 비문 참조, “福祿 誠敬信 壽命 誠敬信”

112)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73 (1992), pp.4-7 참조.

### 3) 대 사회적 교화

박우당 도전께서는 수도인의 수도를 위한 교화 못지않게 종단 차원에서 외부에 덕화를 펴는 일에도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도장 인근 지역 사회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건물을 지어준 일이나 인근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물론, 성금의 혜택을 사회가 받도록 3대 중요 사업을 추진케 하는 일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는 대 사회적 교화의 전형이 된다. 다음의 교화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성금의 덕은 국가에 미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전 인류에 미치게 될 것이니, 3대 중요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하게 하라.

구호자선사업은 이재민구호, 불우이웃돕기(교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의 구제사업을 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양로원, 병원 등을 설립하여 노고(老苦)와 병고(病苦)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국민의 복지시설사업도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사업이란 학교교육·가정교육·사회교육 전반을 말하는 것이니,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

종단은 공동체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 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그 생명성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도전께서 종단의 각종 사업<sup>113)</sup>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세워 시행한 일은 대 사회적 교화가 아닐 수 없다. 종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생구제를 위한 이러한 사업은 종단의 생명력과도 관계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화는 대순진리회의 대 사회적 교화의 전형이 될 수 있다.

113) 道憲, 第九十條, “본회의 사업은 포덕·교화·수도사업,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 및 육영사업 등을 기본사업으로 한다.”

박우당 도전에 이르러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유지를 계승하여 50년 공부 종필로써 전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법을 승신하여 귀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교화되어지고 있다. 이로써 천지운행의 도수에 따른 진법 수도가 가능해졌다. 중통계승이 도의 역사적 전통성 승계만이 아니라 교화의 전형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IV. 대순진리회 교화의 의의

상제께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를 행하셨다고<sup>114)</sup> 하였다. 종교적 법리로 행하는 포덕·교화·수도가 인간을 개조하여 보국안민과 지상천국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교화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1. 인간개조

『소학』의 머리말에 “중인은 어리석고 어리석어 물욕에 가려 마침내 버리(仁·義·禮·智)를 무너뜨려 자포자기(自暴自棄)함을 편안히 여긴다.”<sup>115)</sup> 하였다. 인간은 모두 인(仁)이란 천성을 품부 받았음에도 물욕이 해쳐서 보존한 자가 적으므로<sup>116)</sup> 성인이 이것을 슬피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가르침을 베풀었다<sup>117)</sup>고 한다. 그러나 선

114) 『대순진리회요람』, p.10.

115) 『小學題辭』, “衆人蚩蚩, 物欲交蔽, 乃頽其綱, 安此暴棄”

116) 『孟子』, 「公孫丑·上」,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한 맹자의 말을 주자는 “言衆人雖有不忍人之心, 然物欲害之, 存焉者寡, 故不能察識而推之政事之間; 惟聖人全體此心, 隨感而應.”이라 하였다.

천의 가르침은 물욕을 따르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물질 탓으로 상도(常道)를 저버림은 이마두(利瑪竇, 1552-1610) 사후(死後)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삼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18)</sup> 그리고 상제께서 진단한 오늘날 인류는 아래 인용과 같이 재리(財利)에 눈이 어두워 장차 진멸할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모르고 있는 처지다.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sup>119)</sup>

교화는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측은히 여겨 종교적 법리로 화민정세(化民靖世)<sup>120)</sup>하는 것이다. 이는 은(殷)나라 재상 이윤(伊尹)이, 세상 사람들이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진흙 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자신은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깨달을 사람을 위해, 도로써 백성을 깨우치겠다고 자임(自任)하여 교화하였던 것 못지않은 소중한 행위다. 모두 불인지심(不忍之心)인 인(仁)의 확충(擴充)<sup>121)</sup>이며 본성(本性)의 발로<sup>122)</sup>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인을 조선(朝鮮)에 붙여 주신다 하시면서 잘 지키라고 하셨다.<sup>123)</sup> 진멸지경에 놓인 인간을 측은히 여기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교화를 통해 교화자 자신은 천성(天性) 그대로의 양심(良心)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교화자 자신의 인간개조라고 말할 수 있다.

117) 『小學題辭』, “惟聖斯側, 建學立師.”

118) 『전경』, 교운 1장 9절,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나...”

119) 같은 책, 교법 1장 1절.

120) 『대순지침』, p.20.

121) 『孟子』, 「公孫丑·上」,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122) 『書典序文』, “禮樂教化, 心之發也.”

123) 『전경』, 공사 2장 4절.

또한, 교화로써 물질에 치우친 인간에게 천지공사의 사실을 알리고 인간의 가치를 이해시키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천리에 순응할 뿐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천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대타적(對他的)으로 작용하여 피 교화자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는 물질의 지배를 받아 생(生)의 의미(意味)와 목적(目的)도 없이 방황하던 인류에게 큰 의미 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형편과 이유 탓에 행하지 못하던 인간의 도리를 신도(神道)로 바로잡아<sup>124)</sup> 교화함으로써 회과 자책하여 실행에 옮기게 하기도 한다. 이는 교화로써 무도(無道)함을 치료하여 유도(有道)하게 하는 것<sup>125)</sup>이므로 세상의 무도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인간을 개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화는 교화자 자신의 인을 확충시켜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사람됨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피 교화자로 하여금 물질에 지배된 삶에서 벗어나 인간의 도리를 하도록 일깨움으로써 인간개조를 도모하는 의의가 있다. 『대순진리회요람』을 참조하면 종교적 범리로 인간을 개조함으로써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6)</sup> 이는 사회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보다, 사회 환경을 인간이 능동적으로 개조하고 변화시킨다는<sup>127)</sup>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국안민이나 지상천국의 건설도 개인을 교화하여 인간을 개조하는 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이 성립된다. 교화는 이를 위한 직접적 활동이다.

## 2. 포덕천하

124) 같은 책, 예시 73절. 상제께서는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 한량 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의에 맞는 처신은 신명의 율호가 있게 된다. 이는 윤리의 효용 문제로, 장차 유도(有道)함을 권하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

125)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126) 『대순진리회요람』, p.10.

127) 이장현, 『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4), p.93 참조.

오늘날의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여 소위 ‘감각 문화시대’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28)</sup> 물질과 쾌락으로 대별되는 감각문화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병리 현상을 낳고 있다. 천지에 대병(大病)이 든 것이다. 이는 모두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의 발로가 빚어낸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물질적 갈등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가 인간 감정의 문제다. 상대적 빈곤, 차별, 인격 경시 등등의 이유로 빚어지는 자살(自殺)도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감정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제께서는 인간이 파멸하게 된 이유를 원(冤)<sup>129)</sup>이라고 하셨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원울(冤鬱)의<sup>130)</sup> 감정은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물질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해법은 물질이 아닌 인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종교는 이에 대한 인문학적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원울에 쌓인 감정의 해소 역시 종교가 나서서 그 실타래를 풀어주어야 한다. 대순진리회의 교화 사명은 이와 관계되어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sup>131)</sup>고 하신 구천상제의 교화는 인간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교화로 물질 만능의 의식을 남을 잘되게 하는 상생의 의식으로 변화가능하다. 또한 원울의 감정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피를 씻는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감정에 치우친 인간의 판단은 해원상생 대도의 진리로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나아가 구천상제께서 물샷틈없이 정해 놓은 각자의 운수를 받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을 일깨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화는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유의미한 일이다.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교화로 구천상제의 덕화가 천지에 펼쳐지고 윤리가 바로 서면

128) 해럴드 브라운, 『감각의 문화』, 차성구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참조.

129) 『진경』, 공사 3장 4절.

130) 같은 책, 예시 81절.

131)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고 지상천국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화는, 상제의 덕화로 풍요롭게 베풀어지는 천지의 은혜를 자인 자각하게 하고 지상천국 건설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종교적 사업이라 하겠다. 교화로써 기본교리를 상대에게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면 피 교화자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판단 근거가 된다. 또한 진법을 행하여 인간완성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서면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합(합)이 사회이며 사회의 부분이 개인이다. 교화가 사회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는 물론 개인을 상대로 행해지더라도 교화로써 포덕천하를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진멸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빠져있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나 천지공사를 널리 알리 지상낙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sup>132)</sup> 곧, 포덕천하는 모두 교화로써 이루어진다.

## V. 결론

이상으로 대순진리회 교화의 역사적 전형을 강증산 상제, 조정산 도주, 박우당 도전의 교화 역사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내용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화의 전형이 종통계승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순진리회 교화는 ‘교리의 체계적 전달과 이해’와 ‘진법(眞法)의 모범적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피 교화자를 인도하여 도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는 활동이다. 교리를 지적(知的)으로 상대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천상제의 뜻에 부합된 교안작성과 이를 위한 자료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화가 성

132) 『대순지침』, p.21 참조.

·경·신을 다하여 진법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법에 대한 이해와 교화자의 신앙적 자세도 진지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본보기를 양위(兩位) 상제와 박우당 도전에게서 그 전형을 찾아 따른다면 덕화선양에 사(私)로 인한 차질이 없을 것이다.

상제께서는 인세(人世)에 강세(降世)하셔서 구습(舊習)을 타파하고 해원상생(解冤相生)의 법리에 따라 살 것을 설(說)하시며, 이에 대한 실천을 몸소 보여 인간을 깨우쳐 주셨다. 인간의 원과 한을 양산하던 구시대 삶의 패턴은 그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구적 입장에서 이를 타파할 때는 대부분 기존의 보수적 입장과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상제께서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위(位)에서 강세하여 현실에서 해원상생에 따른 새로운 생활법을 시행하셨다. 이러한 실천은 교화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도주께서는 구천상제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종단(宗團)을 창설(創設)하고 교리(教理)·의례(儀禮)·구제사업을 행하여 후대의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도인들이 행할 바의 도법을 짜는 공부로 일관하였다. 이로써 생성된 유형화된 도법은 물론 그 과정에서 상제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전심전력하시던 자세는 도인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도전께서는 양위 상제의 유지·유법을 계승하여 종단 대순진리회를 설립하시고 인연 있는 자들에게 상제로부터 유래된 도의 종통 계승관계를 바르게 인식시켜 신앙체계를 정립시키셨다. 또한, 도통을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지도하였다. 시학·시법의 진법을 도수에 따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 지도를 함으로써 도문에 들어온 창생이 성공하도록 교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위 상제님의 교화 역사는 박우당 도전의 교화 역사를 통하여 집대성된다. 박우당 도전에 이르러 대순진리회 교화의 개념은 물론 교화해야 할 내용의 대략까지 그 전형이 형성된 것이다.

구천상제께서는 조선말 종교·정치·사회적 도탄기(塗炭期)에 “중



교적 법리로써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오늘날 역시 사회적으로는 도덕과 법, 정의 등의 질서가 심하게 무너지고, 개인적으로는 물질과 육체적 가치 외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고독과 소외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지구적으로는 환경이 몰고 온 재해의 규모도 심각하다. 인류구제에 대한 소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화는 상제께서 창생을 애석하게 여기시던 자모지정(慈母之情)과 같은 마음의 발로에서 지속 가능한 일이다. 대순진리가 나온 연원에 뿌리를 두고 천하의 공론(公論)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를 뚝뚝하고 확실하게 전하여 지상낙원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화다. 해원상생의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사회도 화평해져 지상천국이 된다. 따라서 교화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종교의 본질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광구천하의 본의를 따라 행해져야 할 교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교화안 작성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典經)』,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大巡指針)』,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대순진리회 교무부, 『포덕교화기본원리』 2,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3.
- 대순진리회, 『도헌(道憲)』
- 『태극도통감』, 1956.
- 『논어(論語)』
- 『맹자(孟子)』
- 『대학(大學)』
- 『중용(中庸)』
- 『서경(書經)』
- 『시경(詩經)』
- 『소학(小學)』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 이동준,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서울: 한울, 1997.
- 이장현 외 공저, 『사회학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84.
- 요아힘 바하, 『비교종교학』, 김종서 역, 서울: 민음사, 2004.
-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김희성 역, 경북: 분도, 2009.
- 오테아, 토마스 F, 『종교사회학』, 박원기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89.
- 해럴드 브라운, 『감각의 문화』, 차성구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Abstract▪

## A Study on the Archetypes of Historical Edification of Daesoonjinrihoe

**Back Kyung-un**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Daesoonjinrihoe

Edification in Daesoonjinrihoe is not only a phenomenon that occurs following the differences of religious experience or spiritual development among the community members, which enables the members to share teaching and learning experiences with one another, but also an issue determined as one of the major activities of the religious order and a plan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religious order—Podeokchenha(Wordly Propagation), Gujechansaeng (Salvation of all mankind) and Jisangcheonguk Geonseol(Building of earthly paradi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its concept and provide an example of edification, through considering the historical model for edification to help the cultivators with their work of edification.

The archetype of edification of Daesoonjinrihoe was formed and gradually developed in phases by Sangje, Kang Jeung-san, the Supreme God(姜甌山, 1871-1909), Doju, Jo Jeongsan(趙鼎山, 1895-1958) and Dojeon, Park Wudang(朴牛堂, 1917-1995), by the three of whom the Religious Authority was succeeded.

Sangje descended to the human world and preached to people to live by the rule of Haewon Sangsaeng(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s of all life) and set an example of abolishing the old customs, living in mutual beneficences and having respect for human being. Doju, in revering the last will of Sangje, established the religious order by setting its creed, rituals and activities, which formed most contents of the archetype of edification.

Dojeon set up a religious faith system by firmly establishing the Religious Authority and performed the True Law in accordance with Sangje's program of heaven to educate the cultivators to achieve the goal of self-cultivation following the last will of Doju. Through this, a perfect method to reach the state of Dotong(The Truly Unified State of Dao) is fulfilled. In this way, the archetype of edification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of Religious Authority. In conclusion, edification in Daesoonjinrihoe contributes to a 'systematic conveyance and understanding' through the historical archetype of edification, and it can be described as a concept that becomes a model to put into practice the 'True Law' of teachings given by two Sangjes for Dotong.

Therefore, edification of Daesoonjinrihoe is drawing attention of its development as an important activity that realizes the ultimate value of the religious order because it solves the problems of immorality(absence of Dao), disorder and disregard of human value generated from the other side of this material civilization, with the truth of Haewon Sangsaeng, and has a function of rebuilding and leading the individuals and the society to the Truly Unified State of Dao through performing of the True Law.

**Keyword** : edification, archetype, creed, true law, religious system,  
religious authority, springhead, human rectification,  
building of earthly paradise.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